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백선행기념관

평양의 고색창연한 역사유적인 련광정의 길 건너편에는 품돌이 다듬은 화강석을 정성다해 쌓아올려 건설한 특색있는 건축물이 하나 있다. 백선행기념관이다. 《평양사람이라면 누구나 백선행이라는 녀인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 건물은 그가 한푼두푼 모은 돈을 서슴없이 내놓아 1920년대에 건설한것입니다. 2005년에 다

시 보수개건되었는데 면적은 1 056㎡이고 3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한 사회과학원 리일심연구사가 하는 말이다. 백선행은 1848년 11월(음력) 평양부 박구리(당시)에서 백지용의 딸로 태어났다. 그는 7살에 아버지를 잃고 14살에 시집을 갔으나 야속하게 2년후 남편까지 잃게 되었다. 이때부터 백과부로

불리운 그는 이후로 헛된 한 번 팔세이 남들이 꺼려하는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다. 리일심연구사의 말에 의하면 백선행은 장마철 큰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무다리를 돌다리로 고쳐쌓고 민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막대한 자금을 바쳤다고 한다. 《이렇듯 사람들은 겨울을 위해 바친 그의 아름다운 소행을 찬양하여 본명 대신에 백선행으로 불렀습니다.》

어느덧 3층의 넓은 강당에 들어선 우리는 이곳에서 이 건물에 세워진 사연을 듣게 되었다. 《당시 평양의 신사기에는 부림공회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판매원처니는 《매봉산》 구두를 사신분들은 모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서 원산구두공장에서 우리의 원료와 자재로 구두창의 무게를 종전보다 훨씬 줄여 신발을 경량화하였다고, 신발이 가벼워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한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이렇듯 《매봉산》 구두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선호하는 제품으로 된것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는 원산구두공장 종업원들의 피나는 노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지금도 원산구두공장에서 새 차게 일어번지는 창조의 열풍, 재자원화의 열풍속에 명제품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 생산되고 있다. 하기에 사람들은 원산구두공장이라는 이름보다 《매봉산》 구두공장이라고 더 정답게 부르고있는것이 아닌가. 본사기자

《매봉산》 구두 맵시있고 가벼운

공화국의 백화점, 상점들마다에서 《매봉산》 상표를 단 구두제품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며 발목을 잡는다. 며칠전에도 평양제1백화점의 《매봉산》상표를 단 구두들이 진렬된 매대앞에는 술한 사람들이 붐비고있었다. 《구두가 참 멋있구나. 색깔도 좋고 형태랑 보기 좋은게...》 《신기도 편안하고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겠어.》 《고운 옷을 입고 맵시있는 이 《매봉산》 구두까지 첫 번째라면 지나가는 총각들이 너만 자꾸 쳐다보겠어. 시샘이 다 난다애. 호호...》 구두를 고르는 처녀들의 익살 섞인 목소리이다. 한쪽에서 보기도 멋있고 탐탁해보이는 구두를 하나 골라신고 몇걸을 걸어보던 한 중년남성이 저도 모르게 감탄하며 말했다. 《《매봉산》 구두가 날이 갈수록 더 발전하는구만요. 신으니

원연기쁨을 외금강남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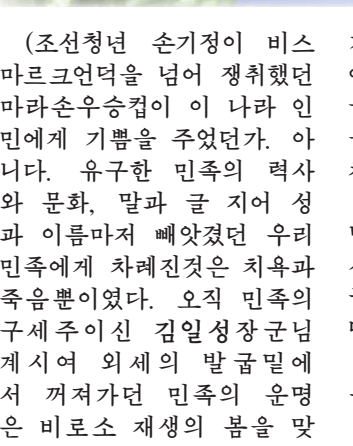
말 때 도가니안으로 심부름드는 아이너석이 기여들어오더니 《박주부어른 어디 계시와요?》 하고 물었다. 박주부는 대답할가 하다가 량반명색에 이런데 들어와 버거웠고 앉았는 구차스러운 꼴을 보이지 않으려고 우정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저쪽 구석에서 《어보게, 박주부를 찾네.》 하는 말소리가 나더니 뒤이어 《음, 왜 그러느냐? 박주부

사 회 돌칸한증 (3) 그림 김윤일

짜에다 특별봉사까지 하겠더니 박주부는 두말없이 불룩한 배를 안은채 수건으로 상투를 꼭 덮어 둥이로 껌껌한 한증가마안으로 기여들어갔다. 화근하는 열기에 숨막히는 뜻깊은 순간이 지나가자 향기로운 송진내가 가슴속으로 녹누히 흘러들었다. 《홍, 상놈들이 제법이로군...》 하며 박주부는 심술궂게 코살을 쩡그리고 광술 때에 도가니안으로 심부름드는 아이너석이 기여들어오더니 《박주부어른 어디 계시와요?》 하고 물었다. 박주부는 대답할가 하다가 량반명색에 이런데 들어와 버거웠고 앉았는 구차스러운 꼴을 보이지 않으려고 우정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저쪽 구석에서 《어보게, 박주부를 찾네.》 하는 말소리가 나더니 뒤이어 《음, 왜 그러느냐? 박주부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문학예술인들 시인 리찬

그이께서는 몸소 여러 차례에 걸쳐 기념관원상부구형성안준비정형과 대책문제들을 로해하시면서 기념관내부를 본래의 건물형식으로 꾸리는 문제와 거기에 필요한 비품은 장문제까지 일일이 관심해주시었다. 그리고 다음해 6월에는 백선행기념비와 비설명문을 백선행기념관의 구내에 세우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하여 백선행기념관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바지한 사람들의 소행을 귀중히 여기시며 그들을 높이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자기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기념관을 돌아보고난 우리는 기념관앞에 서있는 백선행의 반신상앞에 멈춰섰다. 흰 머리수건을 동이고 소박한 저고리차림을 한 평양녀인. 오늘도 백선행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력사와 전통이 비친 민족문화유산과 유적들을 빛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거례를 위해 자기의 재부를 아낌없이 바친 백선행의 미지를 전하며 서있다. 장속영



(조선청년 손기정이 비스마르크언덕을 넘어 쟁취했던 마라손우승컵이 이 나라 인민에게 기쁨을 주었던가. 아니다. 유구한 민족의 력사와 문화, 말과 글 지어성과 이룸마저 빼앗겼던 우리 민족에게 차려진것은 치욕과 죽음뿐이었다. 오직 민족의 구세주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외세의 발골밑에서 꺼져가던 민족의 운명을 비로소 재생의 봄을 맞이했다.) 이것이 바로 시인 리찬이 러친 격정의 분출, 마음속고백이었다. 1910년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출생한 리찬은 물지계장사를 하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어머니가 한푼두푼 모은 돈으로 서울에서 중학교를 힘겹게 마친 그는 그후 일본 함에 건너가 대학에 입학하여 교학생살을 이어갔다. 허나 학비를 댈수 없는 처지에다 일제의 박해로 1년도 못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화기에 애하고 다정다감하며 민족적정서가 넘치게, 주어진 생활환경에 맞게 생활을 자기식으로 꾸려왔다. 특히 겨울철생사의 구심점은 화로였다. 추운 겨울밤 화로가 예는 정도 모이고 이야기도 모이고 추억도 모인다고 하였다. 늙은 이들은 철화로를 끼고 부처가 락으로 재를 저으면서 젊었을 때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우리 선조들은 반드시 조상대대로 죽이지 않고 조상은 불세도 불을 지피었는데 이로부터 집집마다 불세 화로가 따로 있었다. 온돌방에서 아페목은 겨울철생활풍습에서 어머니와 자식들간의 사랑을 이어주는 따뜻한 곳이다. 추운 겨울날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면 어머니는 아페목에 깔아놓은 오

아래에 언손을 물어주었고 솜에서 밥을 뜯 다음에도 그것을 사발에 담아 식지 말라고 아페목에 놓아두었다. 겨울철생활풍습에는 눈과 관련한 풍습도 있다. 눈과 관련한 대표적인 민속으로서는 눈싸움과 눈사람만들기가 있었다. 눈싸움은 겨울철에 집안에서만 지내는 어린이들에게 체력단련의 기회를 줄뿐 아니라 눈덩이에 맞아도 상처를 입지 않음으로 겨울철놀이로서는 이상적이었다. 눈사람만들기는 어린이들이 추위를 극복하고 체력을 단련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같은 편끼리의 단결력과 협동심을 길러주는 좋은 놀이였으므로 예로부터 즐겨 놀았다. 본사기자

가서 중립당한 그는 《카프》에 들어가 예측적인 시작품을 써나갔다. 일제는 이것을 빌미로 여러 차례 그를 체포투옥하였다. 리찬은 1930년대 후반기에 만고의 영웅 김대장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끝없는 신망과 동경의 마음을 담아 서정시 《죽영의 밤》과 《눈내리는 보성의 밤》을 흥분속에 창작하였다. 그후 8.15해방의 격동적인 사변은 불우한 식민지청년이었던 그에게 운명전환의 계기로 되었다. 그때 당시 함경남도 해산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함남일보사 편집국장,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사업하던 그는 주체35(1946)년 4월 어느날 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을 뵈기까지 모시는 꿈같은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그는 김일성장군님을 모신 자리에서 뿜어오르는 격정을 누를길 없어 송시 《김일성장군



우리 선조들은 겨울은 응당 추워야 하고 눈이 많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함박눈이 내리면 따뜻하고 가루눈이 내리면 추워질 징조라고 말한것은 눈의 상태를 보고 날씨를 과학적으로 예상한것이였다.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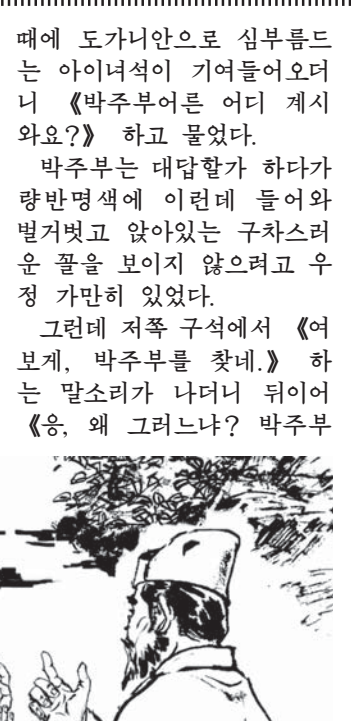
우 리 선 조 들 의 겨울철 생활 풍 습 몇 가 지

할겨울철 열갈홍조현상

수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열갈홍조증이 생기게 된다. 사람들이 피부연고제를 람용하면 피부가 얇아져 피줄이 늘어난다. 이런 사람들이 풍기가 지나치게 차거나 더운 곳에서 오래동안 피부를 노출시키고있으면 피줄이 보다 늘어나 열갈홍조증이 생길수 있다. 열갈홍조증을 그대로 내

메추리적쇠구이

메추리적쇠구이는 갖가지 조미료에 재운 메추리를 꼬챙이에 꽂아 적쇠우에서 구운 요리이다. 메추리는 위를 좋게 하여 몸을 보하며 힘줄과 뼈를 튼튼히 할뿐 아니라 설사, 기침및이작용을 한다. 특히 비혈이 있거나 허약할 때 먹으면 효과가 아주 좋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메추리 2마리일 때 푸른 사자고추 10g, 붉은 사자고추 10g, 올리브기름 2g, 양파 10g, 로리용술 10g, 소금 2g, 후추가루 1g을 준비한다. 메추리는 깨끗이 손질한 다음 배안에 소금과 후추가루, 로리용술을 골고루 뿌려 재운다. 푸른 사자고추, 붉은 사



《우리 주인님이 보내는 꿀물이니 받으세요.》 《음? 꿀물? 그것 참 고맙구나!》 그 사람은 꿀물대접을 받아서 우선 한모금 마시더니 옆에 앉은 사람들에게 돌려가며 골고루 마시게 하였다. 《저런 패설한 놈 봤나. 남의 꿀물을 가로채서 제 얼굴을 내다나...》 박주부는 그 꼴을 더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꼭 숙이고 앉았는데 누가 주먹으로 옆구리를 꼭 찔렀다. 《임자도 한모금 마시게.》 박주부는 자기를 제 동무 대하듯 하는 그자가 패설하기도 하고 북받치는 심술을 더는 참을수도 없게서 저도 모르게 《그런지 마시지 않아!》 하고 껍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대접을 탁 쳐 버렸다. 그러자 대접이 한증간막에 떨어 떨어져 나뉘었다. 심부름은 아이가 그것을 집어 들고 급히 나가자 박주부라면서 나섰던 체통 큰 왈짜가 《저런 어디서 굴러온 달 된 작자야? 동냥은 못줄정 족박은 깨지 말했는데 대접은 왜 내동댕이쳐?》 하고 눈알을 사냥채 굴렸다. 《저런 달던것들이 끼어들어서 서로 위해주는 한증간분위기를 망친다니가.》 《홍, 별 시러배자식을 다 보냈군. 저런 놈은 가마뱀으로 돌아야 해.》

《남의것은 다 좋은출 아느냐?》 어느 마을에 남의 집 김치만 좋다고 하고 제 집 김치면 입에도 대지 않는 한 아이가 있었다. 《어머니, 색깔만 낸다고 김치인줄 알아요. 평하고 입맛이 돌아야 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생각끝에 한마디 하였다. 《그럼 이웃집 김치를 좀 달래오겠다.》 《음! 그래요. 그렇게 하면 입맛이 돌아서겠는데.》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

가 김치를 담아가고 나 있었다. 《이웃집 김치다. 어서 먹어라.》 《어, 시원하다. 김치라는 것은 이래야 해요.》 《남의것은 다 좋으냐? 그럼 이 김치를 늘 얻어다 너에게 주지.》 《정말이에요?》 《정말 아니구. 밥이나 많이 먹어라. 부엌에 뒤둑 가득 담고어놓으니.》 《아니 그럼?...》

주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편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